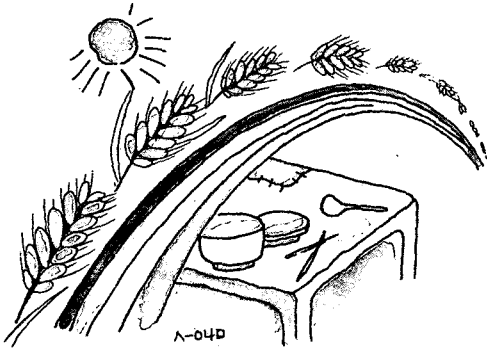


검소한 생활과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洪 思 澳 /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한국수질보전학회 회장

1970년대부터 인지는 몰라도 보리고개라는 말이 유행했다. 우리사회에서 사라지고 이미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말로 들려버린지 오래이다. 봄이되어 보리싹이 미처 나기도전에 한 겨울을 지내는 동안 지난 가을에 추수한 양곡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어 보리이삭이 떨어날때까지 허기를 참아가며 기다려야 하였다.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기 위하여 갖은 고생을 하며 연명하느라고 봄이 돌아오면 의례히 수심에 찬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것이다. 이토록 식량난에 허덕이던 우리국민이 60년대부터 산업신장과 공업입국을 목표로 하여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식량난도 해소되면서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보리고개라는 기억도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먼 옛이야기라고만 기억될정도이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비정상적인 소비풍조가 높아져가고 한 때는 소비를 미덕이라는 뜻이 오도하여 소비풍조를 한층더 부채질한 적도 있다. 소비풍조가 이제는 그 도를 넘어서 과소비현상으로 치달아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근래에는 소비성향이 한층 더

심하여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사회일각에서 이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과소비에 비례하여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쓰레기 중에서도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의 쓰레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 매일매일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쓰레기의 총량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9.9%에 이른다고 하며 전국적으로 추산할 때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할 때 8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에 해당된다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월등하게 높은 이웃나라 일본이라든가 독일을 위시하여 선진국의 국민들은 잘 살면서도 한 술의 밥이나 한 조각의 빵도 귀중하게 여겨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으며 심지어 접시에 묻어있는 소스까지도 빵에 찍어먹을 정도로 음식물을 아끼는 습성이 철저하다. 따라서 음식물 쓰

레기는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적다고한다.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주방에서 나오는 하수의 양도 적을뿐만 아니라 우리네 주방에서 국국물, 김치국물등과 같이 많은 음식 찌꺼기를 함부로 방류하고 있는 주방하수와는 달리 하수의 오염상태가 적어 하천에 흘러들었을때 수질을 그다지 심하게 오염시키는 일은 적다고한다. 그네들의 생활상을 보더라도 검소하고 절제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도 본시는 검소하고 겸허한 자세로 절제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어 소박하게 살아왔던 민족이다. 식생활에 있어서도 근검절약하고 음식물을 귀중히 여기어 헛되게 낭비하든가, 함부로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고 하여 음식을 아껴왔던 것이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빈곤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더불어 느긋하게 살아왔던 것이다. 이 시절만 하여도 대기나 수질오염등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으며 산자수명하여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고 칭송받아 왔었다. 불과 반세기 전만해도 이처럼 자연을 아끼고 가꾸며 살던 우리국민이 어느새 각박한 생활에 쫓기고 정신적인 여유도 없이 매사에 조금씩 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한편 경제신장으로 생활이 어느정도 호전됨에 따라 부지중에 자만심만 늘고 교만하여져 선진국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치스러운 과소비 풍습이 팽배하여지고 있다. 음식물을 아끼 줄 모르고 호식하거나 낭비하는 과소비 풍조와 향락풍토까지도 널리 퍼져가고 그 도가 지나치게 되어가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영양과다섭취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질병이 유발되어 가고 있다. 소위 문화병이라고 말하는 당뇨및 심장병등으로 신음하는 인구가 증가되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반면에 주방의 식품쓰레기와 주방하수는 막대하게 증가하여 하천으로 마구 흘러들어 심히 오염시키고 있다. 그리 대단치 않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봄부터 가을까지 산간계류나 하천변을 끊임없이 찾아 드는 유흥객들이 무심히 계류나 하천에 흘러보낸 음식물 찌꺼기도 하천오염을 촉진시

키는한 원인으로서는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면 식수원으로서 부적합하게 되어 안심하고 마실수있는 상수를 얻기 어려워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마련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휴가를 즐길수 있는 휴식공간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그 뿐만아니라 하천생태계를 여지없이 파괴시켜 어패류등의 폐사현상이 일어나며 그정도는 아니라하여도 어패류에 침투된 썩은 냄새등으로 미각이 떨어지게 되어 결국 담수양식에 적지않은 손실을 입히게 된다. 이 오염된 하천수가 연안에 흘러들어서 어류의 산란장이 되고 있는 기수구역(氣水區域)을 오염시켜 황폐하게 되면 어족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연안일대의 어장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게된다. 결과적으로 물은 있으나 그 물은 우리가 상수나 공업용수로 쓸 수가 없는 물로 변하여 귀중한 수자원을 손실하게 되는 것이다. 조상으로부터 암시적으로 전해내려왔던 음식물을 낭비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바로 그말이 문화병, 용수난, 산산자원감소등의 현실적 문제로 우리네 앞에 닥쳐왔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음식물의 쓰레기도 이와같이 수질오염을 촉진시키는 원인의 하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음식물 찌꺼기나 주방하수가 수질오염의 주원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질보존차원에서 깊이 고려되어야하고 행정당국에서도 많은 계몽과 아울러 가정주방이나 음식점소의 하수및 음식물쓰레기의 감소대책을 시급히 간구하고 엄격한 규정과 지도단속이 뒤따라야 할 줄 안다. 가정에서나 음식점소등에서도 각성하여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서 음식물을 아껴 수질오염을 감소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할것이다. 일반국민도 한 알의 곡식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을 마음깊이 간직하여 음식물을 아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화될 때 자연보호운동도 원활이 이루어져 좋은 결실이 맺어 지리라고 믿는다.

과소비를 우리사회에서 추방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